

<서평>

히브리 시의 비밀을 풀어주는 친절한 ‘시의 문법’서

『히브리 시학』

김정우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3, 442쪽.

이영미*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국내에 히브리 시의 문법을 부분적으로 소개한 책과 글은 있었지만 이를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한 책이 없었는데,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가 24년 간 히브리 시를 가르치고 연구한 결과를 담아 『히브리 시학』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선보였다. 근대 학문적인 시편 연구를 시작한 헤르만 궁켈 이후 100여 년 동안의 논의의 주요 뼈대들만 뽑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시편의 한글 번역도 함께 다룬 국내 최초의 히브리 시학에 대한 소개서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서평을 위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소개한 후, 미흡하나마 서평자의 견해를 밝혀볼 것이다. 책의 논리를 조목조목 따져 평가하는 ‘논평’이라기보다 독자들과 좋은 책을 나눠 읽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적은 ‘논찬’의 성격을 띤 서평이다. 함께 떠나는 『히브리 시학』에로의 짧은 여정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구약성경의 시에

*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시학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서평을 시작한다.

2. 책의 전체적인 구성

이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 데 중심 영역인 평행법, 양식 분석, 수사 분석, 구성 분석, 정경적 분석을 기본으로, 시학과 쌍벽을 이루는 내러티브의 서사 분석, 그리고 구약 해석학의 기본이 되는 어휘 의미론은 ‘헤세드’를 중심으로 한 예증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콤란의 시편 두루마리와 콤란 시편이 정경 형성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글 성경의 시편 번역 특성과 개역개정판 관주의 성격을 다룬 두 편에 관한 글이 실렸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장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히브리 시와 내러티브 비교 연구: 사사기 4-5장을 중심으로
- 제2장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 이론적 기초
- 제3장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 실례들
- 제4장 시편의 양식 분석 방법론
- 제5장 시편의 수사 분석 방법론
- 제6장 수사 분석의 실례 I: 모세의 노래를 중심으로
- 제7장 수사 분석의 실례 II: 한시의 관점에서 본 시편의 분위기 급전
- 제8장 서사 분석 방법론
- 제9장 시편의 구성 분석의 실례 I: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중심으로
- 제10장 시편의 구성 분석의 실례 II: 콤란의 성서 시편들을 중심으로
- 제11장 시편의 정경적 해석
- 제12장 시편의 어휘의미론적 해석: 히브리어 ‘헤세드’를 중심으로
- 제13장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의 대본 문제와 번역특징 및 수용과정에 대한 기초연구
- 제14장 개역개정판 관주: 시편 2편을 중심으로

부록들(391-419쪽)

성경전서 책별 절수와 시 절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요약, 양식 분석 도표, 시편의 시행 분석 단위, 한 권으로 보는 시편,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들의 현황, 시편 두루마리들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시들의 현황.

아래에서는 목차를 따르기보다는 비슷한 주제를 묶어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서평자의 평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3. 책의 내용 소개와 평가

3.1. 히브리 시학으로의 초대장

히브리 성경은 모든 언어의 문학이 그렇듯 시문과 산문을 담고 있으며, 히브리 성경에서 산문과 달리 히브리 시가 가지는 특징을 잘 이해할 때 그 시흥과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시경』을 배울 것을 권고하는 공자의 말씀으로 말문을 연다.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구약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히브리 시의 문법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강한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저자는 히브리 시의 특징을 먼저 일반 시문과 기독교의 시론들의 차이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제 1장에서 히브리 문학 안에서 발견되는 시문과 산문의 차이를 사사기 4-5장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히브리 시학으로의 초대”에서 저자는 일반 시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잠시 언급한 뒤, 기독교의 시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넘어간다. 히브리 시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들로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로버트 로우스(R. Lowth), 왓슨(Watson), 오코너(M. O'Connor) 등의 학자들의 논의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요점만을 명확히 짚어가며 설명한다. 히브리 시학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시편이 ‘모든 성도의 거울’(어거스틴), ‘모든 성도의 심장’(루터), ‘모든 영혼의 해부도’(칼뱅)로 불린 이유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장 격인 “히브리 시학으로의 초대”는 히브리 시학에 대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읽었던 학자들의 견해를 역사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세밀하게 소개해준다. 그러나 히브리 시를 글로 표현하는 학문적 장르로서의 시로만 접근하여 “히브리 시학”을 너무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평가된다. 히브리 시를 문학 장르로 접근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으며, 경전으로서의 시들이 의례에서 낭송되는 노래(찬탕)였음을 감안하지 않고 시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학의 중요한 주제인 운율학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히브리 시를 그 양식(삶의 자리)을 고려해야 하는 배경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사사기 4, 5장의 차이가 문학 장르의 차이와 함께 다른 양식 안에서의 기능과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에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히브리 시편을 시로 볼 것이냐 노래로 볼 것이냐는 견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으며,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를 시편집(Psalms)로 보는 칠십인경 전통과 노래집(Tehillim)으로 보는 마소라 전통이 있어 히브리 시학에서 운율학과 예전에서의 기능은 히브리 시학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라고 본다.

이어지는 제1장에서 저자는 히브리 성경의 시와 내러티브의 차이를 설명한다. 구약성경에서 시는 그 중 34.75%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학 장르이다(6쪽). 각 장르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동일 주제를 다른 문학 장르로 묘사한 본문을 비교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제1장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산문적인 서술

과 시적인 찬양을 담은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인 사사기 4-5장을 예로 삼아 그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 저자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사역을 소개한 뒤, 두 본문의 플롯, 중심사건, 등장인물, 관점이 어떻게 제시되고 묘사되는지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4장의 내러티브는 북부 이스라엘의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한 구원자인 사사 드보라와 영웅 야엘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드러내는 완성도 높은 ‘역사적 내러티브’라면, 사사기 5장은 그 스케일에서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이고 범국가적이고, 그 풍경에 있어서도 장엄하고, 그 예술성은 여성적인 섬세함까지 갖춘 ‘장엄한 서사시’라고 결론짓는다. 전자가 역사적 서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자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러티브와 시의 비교 분석은 각 본문이 보여주는 플롯의 전개, 등장인물 묘사, 중심사건 등의 차이를 내용적으로 선명하게 잘 드러내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들이 어떤 점에서 문학 장르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지 부연 설명이 없이 내용상의 차이로 그치고 있다. 서평자의 견해로,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과 초점의 차이는 내러티브와 시의 용도가 다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4장의 내러티브는 공동체의 역사적 승리 사건과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 공동체의 단합을 이끌어 낼 목적이 있다면, 5장은 구원의 승리를 이끌어낸 주님께 드리는 의례적인 감사와 찬양의 목적을 지닌다. 내러티브와 시는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문학적 기능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부연 설명하면 내러티브와 시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히브리 시학』으로의 여정 초입에서 일반 시론에 대한 시작으로 히브리 시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히브리 내러티브와 시의 차이를 통해 초대장을 받은 것은 반가웠지만, 막상 잔칫집에 들어가려니 ‘히브리 시학’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안내가 없이 다음 장에 바로 히브리 평행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독자로서는 아쉬움의 발걸음을 띠게 되었다. 책의 편집 과정에서 다음 장인 히브리 평행법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2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평행법, 알파벳 배열, 수미 일치, 환유, 반복, 후렴, 이미지 등의 히브리 시의 중심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히브리 시학의 총괄적인 그림을 그려주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3.2. 히브리 시의 특징과 분석 방법론

3.2.1. 평행법

히브리 시학에서 평행법은 히브리 시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다. 저자는 이를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 이론적 기초”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복음서 인용을 사례로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의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평행법의 해석사를 (1) 평행법을 잇은 시대, (2)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3) 평행법의 기능을 재발견한 시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스가랴 9장 9절 두 행에 나타난 ‘나귀’와 ‘나귀 새끼’의 평행 관계를 세 시대별로 설명하자면 평행법을 잇은 시대인 주후 1세기의 관점에서 스가랴 9장 9절은 두 마리의 나귀로,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의 대표자인 로우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둘은 하나를 다른 유사어로 표현한 유상 평행구로, 평행법의 기능을 재발견한 시대를 대표하는 쿠걸의 관점에서는 제1행의 ‘나귀’는 제2행의 ‘나귀 새끼’에 의해 초점화되고 있으므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뜻이 모아진다. 저자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쿠걸의 입장에 동의하여 첫 행의 단어가 둘째 행에서 평행 반복되면서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의미를 강화하거나 뜻의 초점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평행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닦은 후 저자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평행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몇 가지

실례를 소개하자면 반복을 통한 점층 효과를 보여준 아담의 애모곡(창 2:23), 생략을 통한 이중 효과를 보여준 창세기 3장 16절의 ‘사모함과 ‘다스람’의 평행, 숫자 평행법의 사례로 라멕의 보복의 노래(창 4:23-24), 베들레헴 여인들의 승전 찬양가(삼상 18:8) 등을, 그리고 점강법의 예로 잠언 30장 21-23절 등을 소개한다. 히브리 평행법의 기법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실례들 중에서 평행 기법을 통한 창세기 3장 1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여성 억압적으로 해석되어 온 성서적 근거를 재조명하는 좋은 해석 사례임에도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 장에서 사례로 소개된 평행 기법들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저자는 평행법을 쿠걸의 ‘연관된 강조적 재진술’에 동의하면서 그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쿠걸의 입장을 완전히 동조하지 않는 서평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사례 중 완전히 공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언급한다. 하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뿔 수 없는 연대성과 친밀함을 평행법을 통해 보여준 창세기 2장 23절의 ‘아담의 애모곡’이다. 이 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뼈와 살을 두 번 반복하고, 이썬(남자)와 잇쌌(여자)의 음성학적 유사성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마침내 발견한 동반자의 실존성과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점층적으로 고조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반복과 음성학적 유사성의 활용이라는 시적 기법은 보이지만 어느 부분을 평행(구)라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지 모호하다. 또 다른 사례는 점강법을 보여준 잠언 30장 21-23절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는 잠언 30장 21-23절에서 지혜자는 눈꼴 시린 사회적 상황으로서 (1) 종이 왕이 됨(A), (2) 미련한 자가 배부름(A’), (3) 혐오스러운 여자가 시집감(B), (4)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잇는 것(B’)이라는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분석을 통해 이 중에 네 번째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므로 지혜자는 점강법을 통하여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종과 임금의 자리가 뒤바뀌어 정권이 전복

되는 일과 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정의 질서가 전복되는 일 중 왜 후자가 더 최악의 상황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과 끝의 구를 로우쓰의 유사 평행법의 관점에서 질서의 전복을 하나는 남성의 사례로 다른 하나는 여성의 사례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에 따른 교차대구는 내부의 평행 구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잠언 30장 21-23절은 성을 기준으로 볼 때 앞의 둘은 남성, 뒤의 둘은 여성을 다룬, AA'BB'의 반복 평행을 이루며, 내용상으로는 질서의 전복과 부당한 일의 성사를 다룬 교차대구, ABB'A'의 구조를 띤다. 바깥 AA'은 질서의 전복의 심각한 상황을 안쪽 BB'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동일한 상황이 다른 성(남자와 여자)의 처지를 빌어 묘사하고 있으므로 저자가 설명하는 식의 점강법이라기보다는 평행 관계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3.2.2. 시편의 양식 분석

시편 연구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은 궁켈이 시편의 양식을 구별하고 그 시편 양식들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연관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제4장에서 시편의 양식 비평을 궁켈을 시작으로 모빙켈, 베스터만, 크라우스, 바이저, 다후드, 게르스텐버거, 앤더슨, WBC 시편 주석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 저자는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시편 양식의 범주를 찬양시, 개인 애가, 공동체 애가, 개인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제왕시로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구약의 시편들, 정의, 구조,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하부 형식들로 시온의 노래, 신뢰의 노래, 지혜시, 토라시, 예언적 교훈시, 역사시, 야웨 왕권 찬양시, 축복송, 합성시 등으로 분류한다. 이 장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되지 않은 시편 양식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를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데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편을 문학 장르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시가 낭송되

고 사용되는 삶의 자리에 대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3.2.3. 시편의 수사 분석과 그 사례들

시편의 양식 분석에 이어 저자는 히브리 시의 분석 방법 도구로 수사 비평을 소개한다. 마일렌버그로 본격화된 성경의 수사 비평을 히브리 문학의 ‘완성된 기교와 예술’을 들춰내는 문체론적 모델의 수사 분석과 그리스-로마의 고전 수사학의 틀을 성경 분석에 적용하는 설득론적 모델의 수사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한 두 가지 수사 분석의 접근은 텍스트를 문체적 현상의 독백의 맥락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통전적 해석’(intertextuality)과 함께 독자와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수사적 반응을 살피야 할 새 수사학(new rhetoric)의 흐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수사 분석은 시와 내러티브 모두에 적용하는 히브리 문학의 기법에 관한 분석 방법론이다. 저자는 이러한 수사 분석을 시에 적용할 때 기계적인 구조 분석에 치우칠 위험을 염두에 두고 구성과 설득의 두 차원을 동시에 살리는 수사 분석을 제안하고 시행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하여 그 선례를 정리하여 선보인다(부록 4). 구약 학계뿐 아니라 국내의 학술적인 논쟁에서 서로에 대한 업적을 존중하며 서로의 업적을 확대해가기보다는 유익한 제안들이 제안으로 묻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선 시편 양식에 대한 저자의 범주 설정과 함께 시편 구조에 대한 용어 정리가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확장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의 장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분석 방법을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양식 분석에 대한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책의 분량을 고려해서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자는 세 권에 걸친 시편 주석서를 통해 자신의 양식 분석을 잘 보여준 바 있다. 수사 분석의

사례로 신명기 32장 1-43절의 모세의 노래와 애가에 나타난 분위기 급전에 대한 연구를 선보인다. 모세의 노래의 수사 분석은 히브리 문학의 수사 기법에 대한 저자의 문학적 감수성과 섬세함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평자가 가지는 계속되는 아쉬움은 수사적 기교와 설득의 기술과 함께 양식 비평적 관점에서 모세의 노래의 기능과 삶의 자리를 추적하는 것이 빠진 점이다. 모세의 노래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 신명기 32장은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어떤 정황에서 불린 노래이기 때문이며 그 정황이 제의적인 정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다음 사례는 거룩한 전쟁의 전통이 개인 애가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 김이곤 논문 ‘애가에 나타난 분위기 급전’(1985)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시학과 한시에 나오는 시의 모미로서의 급전환의 역할을 살펴본 뒤 히브리 시에서 분위기의 급전이 개인 애가 뿐 아니라, 다양한 시편 양식에서도 드러남을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김이곤의 논문이 시편에서의 분위기 급전 모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성서학계에 이어져서 새로운 안목을 담아 체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서평자의 바램이기도 하다.

3.2.4. 구성 분석과 정경적 해석

히브리 시의 양식 분석, 수사 분석에 이어 저자는 제8장에서 히브리 내러티브에 대한 서사 분석을 소개하는데, 이 장은 히브리 성경의 해석사에서 양성(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과 역사 비평에 대한 다른 입장들, 그리고 내러티브에 대한 서사 분석을 다루고 있어 히브리 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깨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 대한 양성의 논쟁도 이미 역사 비평적 히브리 시론을 펼치는 중간에 언급되고 있어 엇박을 내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9장과 10장은 구성 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구성 분석은 히브리 성경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관심에서 확장된 것이므로 11장의 정경적 해석이 그 앞에 설명되었으면 좋았을 듯하다. 저자도 시편의 구성적 관심은 넓은 의미에서 차일즈의 정경적 해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259쪽). 저자는 시편의 구성적 관심은 월슨이 시편 배열의 원칙을 살펴본 연구(1985)로 본격화되어 월슨 이후 시편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시편의 구성적 통일성을 논의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들로 미첼이나 길링햄, 맥켄, 굴더 등과 국내의 박경철, 김진규, 김형준, 문은미 등을 언급한다. 각 분야의 주제를 소개할 때 해외의 논의와 함께 국내 연구 현황을 염두에 둔 저자의 배려가 여기서도 엿보인다.

시편의 구성 분석의 사례를 저자는 시편 제5권 안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구성과 쿰란의 성서 시편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시편 120-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이 시편들은 순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서사적인 구성과 흐름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은 총 다섯 부로 나누어져 배열되어 있는데, 개체 시편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핵심 단어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발과 도착을 통해 전체를 보여주고 그 중앙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집을 세워가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구조를 가진다. 최종적인 형태에서 순례자의 참된 지혜는 다윗의 경건을 모델로 순례자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저자는 쿰란에서 발견된 성서의 시편들(11QP^s)과 마소라 사본의 시편 사이의 배열의 차이와 그 이유, 그리고 정경적 의미를 구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배열의 관점에서 볼 때, 쿰란 시편 두루마리는 제1-3권(1-89편)에서는 마소라 사본과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제4-5권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령 제5권에서 마소라 사본의 112-118편, 120-132편의 순서는 쿰란에서도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119편은

120-32편의 흐름 직후에 나오며 바로 이어서 135-36편이 나오므로 콤파란 공동체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32편)의 정점에 119편을 두고 이어서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두 개의 시로 연결하고 있다(135-36편). 마소라 사본과 11QPs^a의 배열의 순서와 차이로 야기된 학자들의 콤파란의 성서 시편의 정경적 지위에 대한 견해를 샌더스, 스케한, 곳센-곳스타인, 윌슨, 플린트의 입장을 소개한 뒤 저자는 “11QPs^a 속에는 제의적 성격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독자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콤파란 공동체는 마소라 사본 및 70인역의 전통과는 다른 성경의 시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시편의 구성 분석은 제11장의 시편의 정경적 해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그러나 11장의 정경적 해석은 시편의 정경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기초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오히려 이 장을 책의 앞부분이나 구성 분석 앞에 배치하였으면 흐름이 더 유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12장의 히브리어 헤세드를 실례로 보여준 시편의 어휘의미론적 해석도 논문 자체로는 시편 연구의 좋은 사례이지만 히브리 시학을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책의 구성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의 흐름을 깨고 있다.

3.2.5. 시편과 한글 성경

책의 마지막 두 장은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와 “개역개정판 관주”를 시편 2편을 사례로 소개한다. 저자는 시편 23편과 110편의 대본 및 번역의 질에 대한 평가를 피터스의 『시편촬요』와 언더우드의 『구역』, 그리고 『개역』의 시편 번역을 실례로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그 결과 저자는 피터스의 『시편촬요』는 그가 히브리 원문과 씨름한 흔적을 보여주며 원문의 의미를 비교적 잘 살린 예리한 번역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구역』은 『시편촬요』의 시편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번역한 곳이 여러

곳에 나타나며, 부분적인 수정으로 그친 경우가 발견된다. 『개역』은 어휘 선택과 구문 이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편촬요』와 『구약』을 따르지만 한문 어투를 주로 채용한 특징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도 이들 번역이 히브리 시편의 평행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큰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개역개정판의 관주에 대한 평가를 시편 2편을 사례로 보여준다. 저자는 『개역개정판 관주』를 인증 관주, 비교 관주, 보라 관주, 일반 관주로 유익한 관주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신약과 구약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한 관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이들 관주에 제시된 사례들이 히브리 시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원래의 맥락을 놓친 문자적 연결,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진 관주 등이 발견되는 한계도 지적한다. 아울러 『개역개정판주』가 시편의 문학 구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소개와 형식, 배경을 덧붙여주는 확장된 해설을 담을 것을 제안하면서 책을 마감하고 있다.

4.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말대로 인간의 언어와 시, 내러티브에 문법이 있듯이 성경의 시에도 ‘문법’이 있다. “성경의 시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신학적이지만 시를 구성하고 있는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통적인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시 원래의 맛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히브리 시의 비밀을 풀어가는 ‘시의 문법’을 가르쳐 줄”(1-2쪽), 히브리 시학을 종합적이고 친절하게 소개한 국내의 최초의 종합선물세트이다. 우선 종합적이라는 함은 히브리 시학에 대한 100여 년의 역사 비평적, 문학 비평적 논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연구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신학자들의 논의뿐 아니라, 국내의 시편학자 김이곤의 주요 글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의 폭을 달리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친절하다. 흔히 연구사나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때면 그 학자의 이론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 이차적인 한두 줄의 평가로 넘어가기 십상인데, 이 책에서는 각 학자들의 논점을 정확히 짚어 설명을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 시학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 배움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즐거운 독서였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멋진 요리에 불필요한 양념을 넣어 맛을 흐리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나는 성경 번역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다른 하나는 시문과 병행을 이루는 내러티브 문법에 대한 8장의 글이 전체의 흐름을 깨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이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내내 박사 과정 중 지도 교수님과 히브리 시와 문학에 대한 개인 지도를 1년에 걸쳐 받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당시 히브리 시문과 내러티브에 대한 미국 학자들의 글들을 모두 찾아 읽으며 그 광범위함과 다양한 논의에 놀라기도 했었고 벅찬 느낌도 있었다. 그런 여정 후에 히브리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구약성경은 나에게 신앙 지침서나 신학적 메시지를 듣는 경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저자들의 문학적, 시적 감수성의 감동을 전해주는 책이 되었다. 성경의 시의 ‘문법’을 이해하게 되는 그 시의 ‘멋’과 ‘맛’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시의 멋 기행을 원하는 한국의 독자들이라면 종합적이고 친절하게 히브리 시의 문법을 풀어주는 이 책의 정독을 적극 추천한다.

* 접수일 2014년 2월 17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22일